

고흥군,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로 주소 찾기 편의성 높여

노후 건물번호판 2,850개 교체



건물 번호판 교체 전 후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들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후·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고흥읍·과역면 등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9,691개를 교체했다.

올해는 관내에 설치된 건물번호판 4만 1,545개 중 도양읍·도덕면·풍양면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해 탈색되거나 훼손돼 식별이 어려운 건물번호판 2,850개를 선별해 교체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물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이 더욱 쉽게 위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1-830-5263)로 신청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2027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 반영

보성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지역 주요 현안사업 4건의 국비 4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298억 원 규모다.

2027년도 국비 반영 사업은 ▲K-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6억 원 ▲울포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9억 원 ▲득량면 월평·신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원 ▲별교읍 호동·동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원이다.

'K-Tea 보성말차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는 국비 26억 원과 지방비 26억 원 총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된다. 군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의 노후 제조시설을 현대화하고 말차 전용 제조·가공 설비를 도입하는 한편, 생엽 관리와 건조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밤호박 활용한 당뇨환자용 식품 출시 '눈길'

해남군이 해남 농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종을 1일 정식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해남 밤호박이 들어간 저당 곡물 워 쉐러드'와 '해남 밤호박이 올라간 저당 토마토 파스타'이다.

해남군은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해남 농산물 이용 향당뇨 가공식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전문기업과 협력해 제품 개발과 실증을 거쳐 상품화를 완료했다.

두 제품에는 해남의 대표 농산물인 밤호박을 비롯해 귀리·보리·양파·마늘 등 지역 농산물이 활용됐다. 당류를 낮춘 레시피와 당뇨환자의 영양관리를 고려한 식단으로 설계했으며, 실증연구에서도 일반식과 비교하여 낮은 식후 혈당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진도군 보건소가 9월 첫째 주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주간'을 맞아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는 '레드서클'을 활용해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등 본인의 주요 건강 수치를 정확히 알고,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취지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운동(캠페인)이다.

이번 운동(캠페인)은 9월 1일 진도군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전남 농아인협회, 진도군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장터, 지역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진도군은 홍보부스를 운영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수, 민생안정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현장 소통

장흥군이 8월 31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사순문 장흥군수가 지금 첫날 '찾아가는 신청'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신청을 받는 현장을 살피고, 민생안정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순문 군수는 마을을 찾아온 군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신청 절차를 살펴보는 한편, 군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신속한 지급을 당부했다.

장흥군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국내 대표 박람회서 귀어·귀촌 정책 홍보

'2026 A FARM SHOW' 참가, 맞춤형 상담·이벤트 진행



완도군이 '2026 A FARM SHOW'에서 귀어·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6 A FARM SHOW'에 참가해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 귀농, 귀촌 지원 정책과 완도의 매력을 홍보했다.

'A FARM SHOW'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6개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귀농·귀촌 박람회로, 올해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 150여 개의 부스가 참여했다.

군은 홍보관을 운영하며 예비 귀어,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군에서 추진 중인 ▲귀어, 귀농, 귀촌 정착 및 주택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농·귀어의 집 운영 등으로 특히 초기 정착에 필요한 주거 지원

에 큰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군 공식 SNS 채널인 '희망 완도' 가입 이벤트를 통해 신규 팔로워를 확보하고 지역과 연결고리를 넓히는 계기를 제공했다. SNS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곱창 김과 유자·비파 스낵, 건 대생이·미역, 해초 등을 배부해 지역 특산물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어, 귀농, 귀촌 희망자들이 완도를 직접 경험하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하반기에 '귀농·귀촌 희망학교' 운영과 SNS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귀어, 귀농, 귀촌인 유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장흥군 내 장흥사랑상품권 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